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이력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법무부가 13일 39명의 검사장 이상급 인사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김창진(31기) 1차장검사,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모두 교체됐다.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일할 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기업의 성남에프씨(FC) 후원금 수사를 맡은 바 있다.